

# 제3막 들어선 오디션 전쟁...“기존 틀에 새로운 소재”

### ‘조선판스타’·‘새가수’ 등 주목 극한 치닫은 아이돌 경연 우려도 소외됐던 장르 차별화 시청자 주목

아이돌과 K팝스타 발굴에 지중했던 오디션 예능이 트로트로 일제히 몰렸다가 이제는 각자 새로운 실험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최근 시작했거나 론칭을 앞둔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양각색이다.

대규모 보컬 경연인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나 시즌제 밴드 경연인 JTBC ‘슈퍼밴드’처럼 이미 친숙한 포맷과 소재도 있지만 국악을 전면에 내세운 MBN ‘조선판스타’와 포크송을 소재로 한 KBS 2TV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일에 가렸던 여성 댄서들이 출연하는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아이돌 경연과 서바이벌을 접목한 MBC TV ‘극한데뷔 야생돌’ 등 소재가 한층 다변화했다.

특히 ‘조선판스타’와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는 K팝이나 트로트 등 그동안 주목받던 장르들 대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꾀했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 시청률 측면에서는 극적인 반등이 어려워 보이지만, 경연 장르를 다양

화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비인기 장르를 다루면서도 인지도 높은 심사위원들이나 참가자들의 팬곡 및 퍼포먼스 측면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점도 눈에 띈다. 경연에서 선보이는 곡들이 ‘정통 판소리’, ‘정통 포크송’이라고 하기는 무리일 수 있지만, 대중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해당 장르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린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여성 댄서들의 파워풀한 날 것의 무대와 그들만의 ‘리드’ 문화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극한데뷔 야생돌’은 아이돌 서바이벌의 ‘끝’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다만 오디션 형식은 근본적으로 그대로인 가운데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엠넷 ‘결스플래닛 999’의 경우 기존 글로벌 오디션의 연장선이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댄싱나인’ 같은 장르가 부활하면서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형식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선판스타’도 국악이라 특이해 보이지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는 이미 시도된 부분이 있다. ‘새가수’도 ‘슈퍼스타K’ 형태에 7080 음악을 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기존에 있는 틀을 갖고 오면서도 그것을 담는 형식과 소재를 달리하며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 트



국악을 전면에 내세운 MBN ‘조선판스타’ 출연진들(왼쪽)과 포크송을 소재로 한 KBS 2TV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로트 경연이 잘되고 후속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 다 성공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새로운 소재를 던져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이돌 서바이벌의 경우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포맷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극한데뷔 야생돌’의 경우 차별화에 목숨을 걸다가 극한까지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정글 안에서 생존게임을 하는 게 음악적, 정서적 감수성을 올리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새가수’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경우 재해석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가요계에도 도움이 되는 시도라고 본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 “선택의 순간들에 질문 던지고 싶었죠”

### ‘좋은 사람’ 정욱 감독 부산국제영화제 2관왕



정욱 감독. /사이더스제공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최근 화상 인터뷰로 만난 정욱 감독(34)은 장편 데뷔작 ‘좋은 사람’을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나쁜 뉴스들을 접하면서 ‘나는 과연 다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전했다.

영화는 고등학교 교사 경석(김태훈)이 학교에서 벌어진 지갑 도난 사건과 딸의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지목된 학생 세익(이효재)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이야기다.

경석은 사실 정 감독 자신에게 있는 단점들을 조금씩 끌어와서 만든 인물이라고 했다. 경석이 가진 여러 모습의 하나를 꼽자면 ‘비겁함’이다. 영화를 곱씹어보면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석은 사실 선생님, 남편, 아빠로서 최선을 다한 인물은 아니다. 아내와는 떨어져 살고, 술 문제도 있다. 반 아이들이나 딸에게도 시종일관 방어적이다.

정 감독은 “경석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선한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석은 항상 선택하는 입장이예요. 선택의 순간들에 이게 옳은 선택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지갑 도난 사건에서 자기 돈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행동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딸에게 사고가 난 뒤 와이프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는지, 세익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졌으면 어땠을지.

관객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해요.”

사실 경석이 처한 상황은 꽤 복잡하다.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알기 쉽지 않다.

정 감독은 자신이 경석이었어도 비슷한 선택

을 했을 것이라고 전하며, 그런 선택에는 ‘이성을 가장한 방관’이 깔려있다고 했다. 모든 것을 좋게만 해결하려 했던 경석의 안일함이 사건들을 얹히고 꼬이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개봉 첫 주말 정상

마블의 첫 아시아인 히어로를 내세운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지난 주말 사흘(3~5일) 동안 53만4,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58.8%)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75만4,000여 명이다.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강력한 전설 ‘텐 링즈’의 힘으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 온 아버지 웬우(양조위)에 맞서 내면의 신비한 힘을 일깨우고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는 상치(시무 류)의 이야기다. 2위로 몰려난 황정민의 리얼리티 탈주 액션 ‘인질’은 13만5,000여 명(13.9%)의 관객을 더하며 누적 관객 139만8,000여 명을 기록했다.

‘모가디슈’가 10만3,000여 명(11%), ‘싱크홀’이 6만6,000여 명(7%)으로 뒤를 이었다. 누적 관객은 ‘모가디슈’ 324만8,000여 명, ‘싱크홀’ 211만1,000여 명이다.

신작으로는 공포 영화 ‘맨 인 다크 2’와 음악 영화 ‘코다’가 각각 2만9,000여 명, 1만6,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5위와 6위에 올랐다. 주춤했던



주말 관객 수도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개봉과 함께 다시 반등했다.

지난 주말 관객 수는 93만3,000여 명으로 8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76만8,000여 명)보다 16만5,000여 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 ‘유퀴즈’ tvN ‘메가IP’로 시청률 3배·매출 8배 성장

tvN은 지난달 29일 3주년을 맞은 간판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tvN의 ‘메가 지적재산(IP)’으로 자리 잡았다고 6일 밝혔다.

tvN에 따르면, ‘유퀴즈’는 3년 만에 시청률이 3배 오르고, 관련 매출은 8배가 성장했다.

‘유퀴즈’의 첫 방송 시청률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스코리아 기준 2.3%(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에 그쳤으나, 지난달 25일 방송된 120회의 시청률은 6.7%까지 오르면서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프로그램 매출액 및 광고 판매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설한 ‘유퀴즈’의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약 61만 명, 영상 총 조회 수 2억4,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tvN은 이러한 ‘유퀴즈’의 성장 비결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꼽았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7일 (음력 8월 1일)

**子** 48년생 답답한 가슴이 땀 뚫린다. 60년생 사업 가려면 오늘은 일거리가 들어오겠다. 72년생 내 의견이 관철 된다. 84년생 동서남북 운이 활짝 열렸다.

**辰** 52년생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64년생 동서남북 운이 활짝 열렸다. 76년생 부부금슬이 좋아지는 날이다. 88년생 한 번 더 믿고 보자.

**申** 44년생 순리를 따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56년생 처음은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할 만하다. 68년생 합심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80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丑** 49년생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61년생 힘들고 괴로워도 마지막까지 버티라. 73년생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85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심화된다.

**巳** 41년생 여전히 자금사정은 좋지 않다. 53년생 좋은 소식이 있겠다. 65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77년생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조심하라.

**酉** 45년생 수고는 많으나 도무지 공이 없다. 57년생 모임에 나가면 감투를 쓰겠다. 69년생 인생 무상이다. 81년생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寅** 50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62년생 항상 정 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74년생 검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은 피할 것. 86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午** 42년생 작은 잘못은 이해하고 용서하라. 54년생 후원자를 만나다. 66년생 더 이상의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78년생 먼저 사랑을 베풀면 좋은 일이 있겠다.

**戌** 46년생 곧 뜻을 이룰 것이다. 58생 군대나 사회나 줄을 잘서야 한다. 70년생 말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82년생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일이 있겠다.

**卯** 51년생 낙상을 조심하라. 63년생 오후가 되면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이다. 75년생 자신감이 지나치면 곤란해질 수도 있다. 87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未** 43년생 주변은 어수선하고 마음도 심만하다. 55년생 삶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67년생 아- 고립무원이도다. 79년생 이성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亥** 47년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59년생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71년생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83년생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